

책임교육학년 집중 지원 공교육 책무 강화되나?

17일까지 도내 14개 시군 학력지원센터별로 중등 학습도약 집중지원 캠프 운영

책임교육학년인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의 집중적인 학습지원으로 공교육 책무가 강화될 전망이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6~17일 도내 14개 시군 학력지원센터별로 '2025 중등 학습도약 집중지원 캠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학습과 성장의 결정적 시기인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겨울방학 동안 주요 교과를 집중지원해 학생들의 학력 향상의 전환점을 마련하고, 14개 시군별 학력지원센터의 역할을 견고히 하기 위함이다.

이번 캠프는 교과학습 1일 3교시(9시~12시)로 총 3일간 진행되며, 지역 내 거점학교 또는 학력지원센터별로 운영하는 자존감 UP활동을 추가해 자체적으로 운영된다.
이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국어·수학·영어 과목을 집중 지원하며, 학습지원대상학생 및 희망 학생 등 250여명이 참여한다.
학력지원센터 과학교사와 교과별 전문 강사가 참여해 학생 개인의 학습 수준과 요구에 맞춰 교육을 제공하고, 자신의 학습 목표를 달성해 자신감을

키울 수 있도록 운영할 방침이다.
특히 자존감 UP 활동을 통해 학생 스스로 자신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긍정적인 자기 이미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
유효선 중등교육과장은 "학습도약 집중지원 캠프는 학생들의 학력 향상과 다양한 활동을 통한 학습동기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며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소통하는 상호작용의 과정을 통해 자신의 성장과 발전을 경험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서거석 교육감은 6일 새해 첫 전략회의를 열고 전북교육을 한 단계 더 끌어 올려줄 비란다고 당부하고 있다.

“전북교육, 한 단계 더 끌어올려야”

서거석 교육감, 새해 첫 전략회의서 주문
“전략 · 목표 지점 새롭게 설정해달라”

“올사년은 푸른 뱀의 해로 지혜와 성장, 그리고 발전을 상징합니다. 여러분의 지혜와 유연한 혁신 에너지로 전북교육을 한 단계 더 끌어 올려주길 바랍니다.”
서거석 교육감은 6일 새해 첫 전략회

의를 열어 “2025년 전북교육의 주요 정책과 10대 핵심과제가 선정됐다”며 “새롭게 바뀌는 주요 사업을 교육 가족과 도민들에게 친절하게 안내해 전북교육에 대한 기대와 신뢰를 더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제3자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판단해 전략과 목표 지점을 새롭게 설정해달라”고 주문했다.
끝으로 서 교육감은 “겨울방학이 시작됐다”며 “방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학생생활 안전 등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서거석 교육감은 7일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2025년 주요 교육정책을 밝힐 예정이다. /장은성 기자

거점국립대 최초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국제 인증

전북대, 인증서 수여식
안전보건 경영방침 토대
매뉴얼 · 지침서 등 수립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는 최근 국제표준화기구(ISO) 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 45001:2018) 인증을 획득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거점국립대 가운데 최초다.

이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30분 이승찬 원장 등이 전북대를 찾아 양오봉 총장이 참석한 가운데 인증서 수여식을 가졌다.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 45001:2018)은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사전에 예측하고 예방해 구성원들에게 안전한 근무 환경을 제공하는 기관에 부여하는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제정한 국제표준이다.

앞서 전북대는 안전보건을 최우선

으로 하는 안전보건 경영방침을 토대로 매뉴얼과 절차서 19종, 지침서 32종을 수립했다. 또한 안전보건 전담 부서 신설 및 위험성평가를 통한 유해·위험 요인을 개선하고, 내부 심사도 구성원들의 안전 의식을 높이는 등 체계적인 안전관리 기반을 구축해 왔다.

양오봉 총장은 “우리 대학은 안전

경영, 안전과 보건을 핵심가치로 정하고, 구성원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이번 인증을 통해 교내 안전보건 체계를 국제 기준에 맞게 고도화하고, 또 지속적인 안전보건경영 활동을 통한 안전문화 확산을 선도해 나간 것”이라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지방대학 활성화 종합평가 ‘A등급’

우석대, 지역 정주형 인력 양성 프로그램 등서 높이 평가받아

우석대학교(총장 박노준)는 지방대학 활성화 사업(대학혁신지원사업 III 유형) 종합평가에서 A등급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대학·지자체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비수도권 사립대학의 특성화를 통해 대학과 지역이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비수도권 사립대학 66개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6일 우석대에 따르면 이번 평가에서 휴먼테크 특성화 분야(한방테크 및 라이프케어)에 대한 지역 정주형 인력 양성 프로그램과, 지역 산업계 기반 취업 지원 프로그램의 운영 실적과 성과 등에서 높이 평가받았다.

또한 지자체·대학 간 거버넌스 구축과 산학협력 네트워크, 특성화 분야를 중심으로 한 학사구조 개편 등에서도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아울러, RISE에 연계할 수 있는 우수성과 사례를 체계적으로 선정하고, 지자체 RISE사업 단위과제와도 적절히 연계된 점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박노준 총장은 “이번 A등급 획득은 우리 대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성장하는 데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특성화 분야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 김범석 교수
환경부장관 표창 받아

전북대학교 수의과대학 김범석 교수(생체안전성 연구소 소장)가 업무추진 유공자 시상식에서 환경부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전했다.
시상식은 지난 3일 환경부 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서 열렸다.
이에 따르면 김 교수는 지난 8년 동안 야생동물 폐사체 병리부검을 통한 질병 진단 및 시료 제공 연구 사업에 매진하면서 인수공통감염병 및 야생동물 질병 관리 현안대응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김범석 교수는 “이번 연구사업에 참여한 수의과대학의 병리 부검팀들과 전국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의 유기적 협업을 통해 야생동물질병 모니터링을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었다”며 “인수공통감염병 및 야생동물 질병 관리와 현안 대응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장은성 기자



세계시민의식 함양... 2025 JB-지구촌 지원단 운영

전북자치도교육청, 14일까지 신청접수... 학생 등 대상 세계시민 · 문화다양성 교육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세계시민의식을 함양하고자 '2025 JB-지구촌 지원단'을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JB-지구촌 지원단은 학부모 및 교직원, 학생을 대상으로 세계시민교육 및 문화다양성 교육을 담당하게 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은 오는 14일 오후 2시까지 신청서, 교육활동 지도안, 수업 실연 영상 파일,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등의 제출서류를 작성해 교원은 민주시민교육과로, 외부 지

원지는 이메일(hrlee1209@jbedu.kr) 각 제출하면 된다.
지원 자격은 △세계시민교육 교사연구회 및 세계시민교육 선도교사 활동이력 있는 자 △다문화교육 중점학교 운영 유경험자 △교육청 주관 다문화교육 관련 지원단, 파견 프로그램, 연구회, 사례동행 등에 참여한 자 △교수, 교원, 다문화교육 관련 유관기관 근무 이력 소지자 △문화다양성교육 강사로 활동한 이력 있는 자 △해당 분야 관련 학위 소지자, 관련 분야 자격증 소지자 등이다.

이후 전북교육청은 심사를 거쳐 오는 21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하고, 2월 7일 JB-지구촌 지원단 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김지유 민주시민교육과장은 “지원단은 4월부터 11월까지 학교로 찾아가 세계시민교육 및 문화다양성 교육 이론, 세계시민교육 문화다양성 교육의 실제 및 사례, 학교으로서 필요한 문화감수성 함양 교육 등을 담당하게 된다”며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대학교는 도내 4개 LINC 3.0 사업단 연합으로 3~11월 6박 9일 일정으로 미국 현지에서 'CES 2025 글로벌 교육연수'를 실시한다. <사진=전주대학교 제공>

전주대, CES 2025 글로벌 교육연수

도내 LINC 3.0 사업단 연합... 총 25명 선발 인솔 직원과 함께
CES 2025 참관 · 실리콘밸리 탐방 통해 첨단 기술 직접 체험

전주대학교(총장 박진배)는 도내 4개 LINC 3.0 사업단 연합으로 3~11월 6박 9일 일정으로 미국 현지에서 'CES 2025 글로벌 교육연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이번 연수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규모의 가전·정보기술(IT) 전시회인 CES 2025를 참관하고, 또 캘리포니아 실리콘밸리 내 구글 캠퍼스, 애플 파크, 인텔 뮤지엄, 스탠퍼드대학교와 버클리대학교를 방문해 글로벌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해 마련됐다.
이에 전북권 4개 대학(전주대, 전북대, 원광대, 우석대) 연합으로 CDS 빅데이터 전국경진대회에서 대상(한국연구재단 이사장상)을 수상한 전주대 전기전자공학과 김진우 학생을 비롯해 각 대학 LINC 3.0 사업 참여 우수

학생 총 25명을 선발해 인솔 직원 5명과 함께 진행한다.
특히 전 세계 160개국 4,312개 기업이 참가하는 CES 2025 참관 및 실리콘밸리 탐방을 통해 세계적인 첨단 정보기술의 변화와 흐름을 직접 체험 및 습득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세계적인 첨단 기술 산업의 중심지인 실리콘밸리와 스탠퍼드대학교 등을 탐방한 후 글로벌 연수 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연수에 참여한 김진우 학생(전기전자공학과 4년)은 “AI, 자율주행, 모빌리티 등 첨단산업 분야를 체험하는 기회를 줘 감사드린다”며 “미래 혁신 인재가 갖춰야 할 인재상 등을 배워 글로벌 창의 융합 IT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연수원은 10일까지 '2025 늘봄지원실장 임용예정자 직무연수'를 운영하고 있다.

전북형 늘봄학교 안정적 정착 지원 강화

전북교육연수원, 10일까지 늘봄지원실장 임용예정자 직무연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연수원(원장 민완성)은 6~10일 '2025 늘봄지원실장 임용예정자 직무연수'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전북형 늘봄학교의 안정적 정착을 돕고, 늘봄지원실장 역량 강화를 위해 기획됐다.
특히 단순한 직무 교육을 넘어 '전북형 늘봄학교'의 안정적 정착과 성공적 운영을 위한 핵심 인력 육성을 목적으로, 정책 이해부터 운영 역량 강화까지 교육과 돌봄을 효율적으로 통합하는 늘봄지원실장의 전문성을 한

층 강화하고자 했다.
이를 통해 늘봄지원실장의 업무 전문성을 통해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고,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활용해 내실 있는 책임교육이 실현될 것으로 기대된다.
민완성 원장은 “이번 직무 연수는 전북형 늘봄학교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초석을 다지는 중요한 기회”라며 “늘봄지원실장들이 실질적인 지식과 경험을 쌓아 향후 학교 현장에서 큰 역할을 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의 지름길

전주대학교 학생취업처 김채린 주임이 교육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이에 따르면 김채린 주임은 2021년 10월부터 국가근로장학 업무 담당자로서 △국가 근로 확대 운영 △학생 선발 및 관리 과정 개선을 통한 장학금 수혜액 증가 △취업역량 강화 기회 확대 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국가근로 확대 운영을 통해 코로나19 이후 학생들의 안정적인 학업 여건 조성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
또한, 공정한 근로장학생 선발 시스템 운영과 부정근로 방지 교육 이수 필수화로 학생들의 정당한 근로 인식 제고를 통해 국가 예산 집행 건전성 확보를 위해 힘썼다.
김채린 주임은 “국가 근로를 통한 우리 대학 학생들의 취업 역량 제고와 안정적인 학업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학생들이 장학금 수혜 뿐만 아니라 직접 체험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

